

[내부보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성명	김광희	이정혜
소속	대외협력부	대외협력부
직위	과장	대리
여행국	미국	
여행목적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회의 참석	
여행승인기간	2018. 6. 10.~ 2018. 6. 16.	
실제여행기간	2018. 6. 10.~ 2018. 6. 16.	

목 차

I. 출장개요	3
1. 출장목적	3
2. 방문국가 및 기관	3
3. 출장단원	3
4. 출장기간 및 세부일정	3
II. 회의개관	4
III. 회의 주요내용	5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선출	5
2. 일반토의	5
3. 원탁토의	6
IV.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9
1. 주요성과	9
2. 향후계획	9
V. 참고자료	10
1. 한국대표단 발언문 요약	10
2. 사진자료	11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가.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참석 및 한국 정부대표단 지원
- 나. 인천전략기금사업 홍보, 당사국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2. 방문국가 및 기관

- 미국 뉴욕 유엔본부

3. 출장단원: 총 2명

소속	직위	성명
우리원 대외협력부	과장	김광희
우리원 대외협력부	대리	이정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조남권 국장, 성지은 주무관 동행

4. 출장 기간 및 세부 일정

일 자	여행지역	수 행 내 용	비고
6.10.(일)	인천→JFK공항	· 숙소이동, 회의 준비 등	KE081편 (10:00~11:20)
6.11.(월)	뉴욕(유엔본부)	· 시민사회포럼 참석	유엔본부 회의실 4
6.12.(화)	뉴욕(유엔본부)	· 개회식 및 일반토의 참석	
6.13.(수)	뉴욕(유엔본부)	· 일반토의(정부발언) 및 원탁토의 1, 2	
6.14.(목)	뉴욕(유엔본부)	· 원탁토의 3 및 폐회식 참석	
6.15.(금)	JFK공항→인천	· 귀국	KE082편
6.16.(토)			(14:00~익일 17:20)

II. 회의개관

- 가.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당사국 회의에는 177개국 협약 당사국을 포함하여 유엔사무국, 유엔전문기구,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대표단 등 약 800명(출장단 추산)이 참석함.
- 나. 이번 회의 주제는 ‘CRPD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실현’ 이었으며, 유엔본부 회의실 4(Conference room no.4)에서 진행함. 시민사회포럼과 본회의 외에 67개의 연계회의(Side event)가 열림.
- 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18명 중 2018년 12월 31일에 9명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회의 첫날인 6월 12일 오전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 선거가 진행됨. 현재 위원회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에 종료되어 여성 위원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여성 위원으로 선출됨. 특히, 김미연 후보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으로 발탁됨.
- 라. 당사국 대표들은 일반토의(General debate)을 통해 동 회의 주제에 대한 각국의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진전사항을 공유하였음.
- 마. 또한 전문가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총 세 번의 원탁토의에서는 CRPD 이행강화를 위한 국가재정지원·민관협력·국제협력, 장애소녀 및 여성, 정치적 참여 및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음.
- 바. 우리 대표단은 68번째로 진행된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

Ⅲ. 회의 주요내용

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선출

- 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현재 위원 18명 중 2018년 12월 31일에 9명의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6월 12일 오전에 유엔본부 회의장4에서 새로운 위원 9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됨.
- 나. 올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선거에는 30명의 후보가 지원했으며, 그 중 6명이 자진사퇴하여 총 24명의 후보로 선거가 진행됨.
- 다. 올해 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가한 176개국의 과반수인 88표 이상을 획득해야하며, 88표 이상 획득한 후보 중 다수의 표를 획득한 순서대로 위원이 선출됨. 6월 12일 오전에 진행된 첫 번째 투표 결과 176표가 유효(무효 0표)했고, 88표 이상을 획득한 리투아니아(117표, 재임), 나이지리아(108표, 재임), 호주(107표), 스위스(104표), 대한민국(99표, 김미연), 가나(92표)의 후보 총 6명이 먼저 당선이 됨.
- 라. 두 번째 투표는 점심 이후 오후세션에서 진행되었는데, 175표 유효(0표 무효)했고 투표결과 브라질(103표), 인도네시아(92표), 멕시코(90표)의 후보가 나머지 3명 위원으로 당선 확정됨.
- 마. 2016년 선거 이후 유일한 여성 위원으로 남아있는 테레시아 데게너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말에 종료되어 여성 위원 부재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여성 위원으로 선출됨. 특히, 김미연 후보가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으로 발탁되는 쾌거를 거둠.

2. 일반토의

- 가. ‘CRPD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 실현’을 주제로 협약 당사국,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의 발표가 진행됨. 발표자는 해당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주제에 대한 관련 정책, 제도 및 서비스 등을 소개함.

나. 우리정부는 본회의 둘째 날 오후에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이 대표로 발언함. 이 발언을 통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이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을 주도해나갈 것을 밝힘. 또한 우리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함.

3. 원탁토의

가. 원탁토의 1: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지원, 민관협력 및 국제협력

- 원탁토의 세션1에서는 유엔 사무총장의 장애 및 접근성 특사 마리아 솔레다드 시스테르나스 레예스와 일본 국립장애인재활센터의 야요이 키타무라 등 총 5명의 패널이 발표함. 이 회의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유니세프와 유엔여성기구의 연간 지출액에 비해 장애인권 옹호를 위한 유엔의 연간 지출액이 현저히 낮음이 지적되었고,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 또한 장애인 고용과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강조됨.
- 일본 국립 장애인재활센터의 야요이 키타무라(Ms. Yayoi Kitamura) 패널은 정부가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만들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한 데 비해, 민간 및 국제기구는 융통성이 있고 정부의 새로운 통계에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다고 언급함. 구체적인 사례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행된 장애통계수집의 사례를 들며 민관협력의 좋은 예시로 소개함. 대지진 발생 3개월 후 일본공영방송 NHK

에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장애인 사망자의 수를 집계함. 대지진 발생 6개월 후에 나온 결과에 따르면, 지진 피해지역 내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의 2배였음. 이 수치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재난 시 장애인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되고 있음. 지진 발생 2년 후 일본 내각부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함. 즉, 회사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고, 지방정부가 연구결과를 공론화하며 의무감을 갖고 대응해주었고, 정부는 데이터 수집을 완성시킨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를 제시함.

나. 원탁토의 2: 장애소녀 및 여성

- 원탁토의 세션2에서는 케냐 몸바사 지방정부 의회의 람라 사이드 오마르 모하메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테레시아 데게너 등 총 6명의 패널이 발표함. 전 세계 6억 명이 장애소녀 및 여성이며, 여전히 장애소녀 및 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이 지적됨. 장애소녀 및 여성을 위한 법 제도가 더욱 견고해져야 하며, 특히 다중차별 및 교차차별로 인해 장애소녀 및 여성(그중에서도 정신장애여성 및 지적장애여성)의 인권이 고려되어야 함이 강조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장 테레시아 데게너(Ms. Theresia Degener)는 장애소녀 및 여성은 협약 전체에 걸쳐 명백히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협약 제6조(여성장애인)는 교차차별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인권조항이라고 언급함. 하지만 협약 채택 후 10년 동안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장애소녀 및 여성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고 밝힘.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견해 3번을 협약 이행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함. 이 일반견해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이 나와 있음. 이는 ▲폭력 방지 ▲재생산의 자율성과
성 보전에 대한 권리 보장 ▲ 다중차별 근절임. 국가적 수준에서
는 이 우선영역 관련 현행법을 검토하거나 새로운 법을 입안하는
것을 권고하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장애소녀 및 여성은 정치적 참여 및 국가재정지원 과정
에서도 인식되고 지지되어야 한다고도 언급함.

다. 원탁토의 3: 정치적 참여 및 법 앞에서의 평등

- 원탁토의 세션3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
다스 아길라, 브라질 인권부 차관 앤젤스 어거스토 무니스 등 총
6명의 패널이 발표함.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물 제거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을 통해 모든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장애인이
정치와 공적생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됨.
-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Ms. Catalina
Devandas Aguilar)는 장애인은 어떠한 차별 없이 투표할 권리와 선
출될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장애로 인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법적 행위능력에 대한 부정 및 제한은 장애인 참정권,
특히 투표권에 상당한 장애물이 됨. 또한, 투표소의 접근성이 떨어
지는 것은 장애인의 선거과정 참여도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야말로 정부가 장애포괄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함.

IV.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1. 주요성과

가. 제11차 회의주제에 대한 우리정부대표의 발언 및 현지대응 지원

나. 국제사회의 장애포괄적 개발관련 최신 동향 및 쟁점 이슈 파악 등

2. 향후계획

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협력대상국가 장애관련 자료 수집 및 이용

- 당사국 발언내용을 통해 협력대상국가의 장애관련 현황 자료 및 이용

나. 국제기구(IDA 등)와의 네트워킹

- 올 10월말 IDA 동북아 컨퍼런스를 우리 원에서 주최하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실무 및 기관 차원의 논의 준비 등

다. 김미연 신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활동 지원

- 김미연 신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활동 관련 지원 방안 논의 예정

V. 참고자료

1. 한국대표단 일반토의 발언문 요약

- 새롭게 선출된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지지함.
- 지난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 개최를 계기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함.
- 지난 5년간 실시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이 올해부터 다양한 세부과제 선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함.
- 한국정부는 인천전략을 통해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유엔에스캅과 협력하여 아태지역 협력국을 대상으로 장애통계 구축을 위한 국가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2. 사진자료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전경



▲한국정부 대표로 기조발언 중인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김미연 신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조태열 대사, 박철주 차석대사 및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제11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 중인 출장단의 모습

2018. 6. 29.
제출자 이 정 혜